

“

높은 대외 불확실성과
내수 부진 장기화 속에서 지역경제와 기업의
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

‘2+2 통상협 의’를 바탕으로
상호관세 유예기간 내에 양국이 합의할 수 있도록
‘JULY PACKAGE’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

아울러,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
귀를 기울이면서 꼭 필요한 지원들이
적기에 이루어지도록
“끝까지 책임과 소임”을
다하겠습니다”



경제부총리 겸
기획재정부 장관